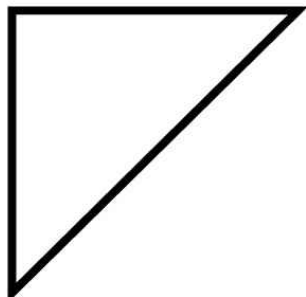


—
2019 글로벌마켓 리포트
중국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

19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현황 및 트렌드

China Animation market condition & market trend

목 차

1. 중국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 (1) 행사개요 1
- (2) 행사규모 2
- (3) 프로그램 4
- (4) 시장 트렌드 / 비즈니스 팁 11
- (5) 핵심 참가 기업 12

2. 중국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현황

- (1) 애니메이션 산업의 역사 및 연혁 16
- (2)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현황 18

3.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환경

- (1) 시장환경 19
- (2) 정책환경 26
- (3) 기술수준 29

4. 애니메이션 산업 투(융)자 상황

5.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기업 소개

6. 애니메이션 산업 내 한중 양국 협력 현황

6. 애니메이션 산업 내 한중 양국 합작 현황

한중간 애니메이션 합작은 최근 들어 또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십여 년 전 처음으로 합작 붐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한국의 창작품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한중 외주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중국 인터넷 영상업계의 빠른 발전으로 동영상 플랫폼에 대량의 자본이 유입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애니메이션 제한 정책과 중국 자체 인터넷 문화 및 IP의 발전으로 국산 애니메이션은 생산 수요의 압박과 높은 퀄리티로 색다른 작품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됨. 최근 몇 년간 2D 애니메이션의 유행으로 중국 시장은 한동안 일본식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추구했으나,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 비용은 너무 높았음. 이에 반해,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은 중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작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많은 중국 회사들이 한국 업체에 외주 제작을 많이 맡기게 됨. 오랜 기간 일본 작품들의 외주 제작을 맡아온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일본의 고집스러움과 중국의 유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합작을 진행할 수 있음.

다수 합작을 기반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는 중국 자본 및 기업과 점점 더 많은 관계를 맺게 됨.

- 2015년 6월, 중국기업 쑤닝은 인민폐 2.54억 위안의 가격으로 <넛잡: 땅콩 도둑들>을 제작한 한국 애니메이션 회사 Red Rover의 주식 20.17% 매입하여 최대 주주가 됨.
- 2015년 12월, 아오페이엔터테인먼트는 한국애니메이션 회사 FunnyFlux의 주식 43.79%를 849.9만 달러에 매입함. 아오페이의 3D 아동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왕스>는 FunnyFlux · 치엔치 애니메이션 · 미니 비행기 제작회사와 EBS가 공동으로 제작함.

최근 들어 한중애니메이션의 합작은 점점 더 긴밀해져, 텐센트·CCTV 등의 대형 그룹들도 이 대열에 뛰어들고 있음.

한중애니메이션 합작의 성공에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크게 반영됨. 한중 양국 모두 애니메이션 산업을 매우 중시하며, 양국 모두 자국산 애니메이션 방송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의 신문출판광전총국은 2014년 7월 3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영화 촬영 합작에 대한 협의>를 체결함. 해당 협의에는 합작 영화의 심의 과정·조건·기술 합작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음. 중국의 영상 콘텐츠 보호 정책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영화 산업이 중국과 합작하기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역시 유럽과 미국 등 주류 시장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면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많은 시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 또한 다

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음. 만일, 한국의 풍부한 경험이 중국의 거대한 자본을 이용해 주류시장에 진군해 들어간다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결론적으로, 한중 애니메이션 산업은 상호간 높은 보완성과 문화의 유사성으로 당대의 애니메이션 IP 또한 서로에게 쉽게 다가서러 수 있음. 또, 정보산업의 발전 수준도 비슷해 양국 애니메이션 합작의 기초는 매우 탄탄하다 볼 수 있음. 중국의 시장 규모와 투자 능력, 한국의 기획·디자인·제작 경험의 장점을 결합하면 그 효과를 기대해볼만함.